

<그리스> 브뤼셀 새 EU 환경위원장

Jose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Margot Wallstrom의 후임으로, 그리스 변호사인 Stavros Dimas를 브뤼셀의 가장 영향력 있고 도전적인 직위 중 하나인 EU 환경위원장 (Environment Commissioner)으로 선택했다.

산업 및 경제정책에 정치적 배경을 두고 있는 Dimas는 남부유럽의 보수주의 색채를 띠고 있어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Dimas가 신민주당 중도 우파의 일원으로서 다분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이후 그는 EU의 노동 및 사회복지 위원장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commissioner)로 일해왔다.

Dimas위원장의 한 측근은 Environment Daily 인터뷰에서 Dimas 위원장이 환경포트폴리오를 넘겨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하고 정책실무에 파고 들기를 좋아하는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Dimas를 소개했다.

EU의 화학약품정책 개편에 따라 Dimas위원장은 장관들에 의해 면밀히 조사된 'Reach package'를 방어하는 힘든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위원회(MEPs)는 그의 취임 첫 2년 동안 수행해야할 주요과제가 될 것이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10% 차지

점점 더 독일에서는 태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대안 전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베를린에서 올해 상반기에 독일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은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의 7.9%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약 2%가량이 상승한 것이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가장 큰 원인은 날씨요인을 들 수 있다. 작년에는 특히 건조했고 바람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무엇보다 풍력발전기나 수력발전시설들이 전력 생산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도 재생에너지 전력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수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크게 추월했다. 뿐 만 아니라 풍력업계는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총 전력의 30%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중국]환경보호형 악취 제거제 연구

중국 서북농림과학기술대학(西北農林科技大學)과 서안해랑회사(西安海浪公司)에서 6년 간의 공동 연구로 최근 미생물 악취제거 항균제 연구에 성공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산서성 과학기술청(陝西省科學廳)에서 조직한 전문가 검사를 통과하였다.

"만결분(万决芬)"으로 명명한 이 제품은 악취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항균작용이 있다. 또한 바이러스 억제 작용이 있으며, 인체에 손상을 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



악취는 세계에서 공인하는 7대 공해(公害) 중의 하나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번식시킨다. 오랜 시간동안 중국의 악취 제거방법은 인공적으로 매립하거나 향을 이용하거나(공기청향제 등), 혹은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악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남아 있어 2차 오염원이 되기도 한다.

"만결분(万决芬)"은 이전의 방법과 달리 국내 외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유익 균주를 이용한 것으로, 악취를 먹고 분해하는 동시에 항생물질을 분비한다. 이는 산성 환경을 형성하게 하여 각종 병균을 억제하고, 인체에 아무런 손상도 주지 않으며, 2차 오염될 우려도 없는 환경보호형 악취 제거제이다.

[호주]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과 바이오닉 장갑, 호주과학상 수상

물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과 마비된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을 돕는 기능을 가진 바이오닉 장갑이 지난 화요일, 호주의 최고 과학상을 수상했다.

Plantic Technologies 사는 물에서 분해되어 정원비료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옥수수 녹말을 이용해 만드는 이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처럼 물당이 가능해 식품 포장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Plantic측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개발된 플라스틱에 대한 각종 기업체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미생물에 의해 분해 가능한 비닐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lantic사는 호주달러로 1만 달러(US\$7150)를 상금으로 받았다.

Plantic사와 함께 이번 호주과학상을 수상한 바이오닉 장갑은 마비된 손을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 장갑은 특수 '근육와이어'를 이용해 전류를 모아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척수손상, 중풍, 수술, 화상,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한 작살수리업자인 Alan Williams는 1960년대에 불법적으로 들여와져 현재 호주의 강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는 잉어를 잡는 덫을 만들어 수상을 했다.

잉어의 물위로 뛰어 오르는 습성을 이용한 이 덫은 물줄기를 거슬러 헤엄치는 잉어와 같은 물고기들이 덫의 첫 번째 케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빠져 나가려고 다시 점프하면서 두 번째 케이지에 갇히게 된다.

[남아프리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남아프리카의 화석연료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막대한 의료비를 초래하고 있다.

환경관광부의 Peter Lukey는 "상당수의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호흡하기 적절치 않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법률적 제재가 없어 중심지역의 대기오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1965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기존의 대기오염 관련 법률로는 막대한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공해유발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힘들며, 심지어 정부 관리들과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간의 유대관계가 좋아 현 법률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